

‘거포 본능’ KIA 아데를린, 해결사로 우뚝 선다



데뷔 후 4안타 모두 홈런...KBO 최초 진기록 작성 이범호 감독 “김도영과 시너지 기대...적응 빠르다”

KIA 타이거즈 대외인 타자 아데를린이 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데를린은 지난 4일 계약기간 6주, 연봉 6만달러에 KIA 유니폼을 입었다. 햄스트링 부분 손상으로 이탈한 해럴드 카스트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기대감은 합류 전부터 컸다. 아데를린은 지난해 멕시코 리그에서 13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3, 42홈런, 125타점 OPS 0.966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과

시했다. 마이너리그와 일본프로야구 등 다양한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이라는 점도 KIA가 주목한 부분이었다.

그의 KBO 데뷔전은 5일 한화전. 첫 인상부터 강렬했다. 이날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아데를린은 1회말 2사 1·3루 찬스에서 데뷔 첫 타석에 올라 대형 타구를 폭발시켰다. 상대 5구째 127km 슬라이더를 그대로 걸어 올려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포를 터트렸다. KBO리그 외국인 선수 6번째이자, KIA 소속으로는 황정립(2012년)에 이어 2번째 데뷔 첫 타석 홈런이다. 이날 아데를린의 활약에 힘입어 팀은 12-7로 승리했다.

기세는 이어졌다. 6일 한화전에서는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렸고, 8일 사직 롯데자이언츠전에서도 다시 대포를 가동했다. 특히 이날의 홈런은 의미가 깊었다. 아데를린은 9회초 무사 1루에서 상대 투수 5구째 149km 직구를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아데를린의 데뷔 4번째 안타이자 4호 홈런. 데뷔 후 친 4안타가 모두 홈런인 것은 KBO리그 최초 기록이다.

9일 롯데와의 주말 2차전에서는 ‘한 방’ 대신 결정적인 한 타로 존재감을 보였다.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그는 8회초 1사 1·3루 찬스에서 김원중을 상대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포크볼을 받아쳐 만든 KBO리그 5번째 안타이자 이날 경기 결승타였다.

KIA 입장에서는 반가운 활약이다. 최근 나성범이 주축한 가운데 김도영에게 집중됐던 해결사 부담을 아데를린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 타선에 장타력을 갖춘 외국인 타자가 자

기가 달라진다. 외국인 타자가 가진 힘이 필요하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끝에 맞아도 공이 넘어간다. 힘을 쓰는 능력과 배트 스피드가 있어야 비거리가 나온다. 스윙에 맞혔을 때 힘을 쓰는 능력이 있다”며 “위낙 홈런을 많이 치는 유형의 타자라 방법을 알고 있다. 변화구가 올 타이밍을 읽는 모습도 좋다”고 설명했다.

적응력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이 감독은 “아시아 야구를 경험해서 그런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 선수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비 때 번트 시프트 등에서도 움직임을 알고 플레이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스마트하게 야구를 할 줄 아는 선수다. 앞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치를 잘 보여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아데를린은 6주 계약으로 KIA에 합류했다. 현재 남은 기간은 5주. 이 기간 활약을 이어가려면 정규계약 전환 가능성도 생긴다. 실제 카스트로는 23경기에서 22안타 2홈런 16타점 타율 0.250에 머물렀다. 아데를린은 10일 경기 전 기준 5경기에서 홈런 4개 타점 9점을 몰아치고 있다. 홈런 개수는 이미 카스트로를 뛰어넘었다.

중심 타선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아데를린이 앞으로 활약을 이어가며 팀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리하면서 팀 공격에도 활력이 불고 있다.

이범호 감독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김)도영이 뒤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아데를린이 저렇게 잘 쳐주면 도영이와도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며 “타선은 중심 타선이 얼마나 해결해주느냐에 따라 팀 전체 분위

또 무너진 이의리...KIA, 롯데전 위닝시리즈 마감

주말 3차전서 3-7 패...2.2이닝 4실점 강판

KIA 타이거즈가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다.

KIA는 1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의 주말 3차전 경기에서 3-7로 패배했다. 앞서 8일 8-2승, 9일 3-1승을 거둔 KIA는 이날 패배로 롯데와의 주말 경기를 위닝시리즈로 마감했다. 그 결과 17승 1무 19패 승률 0.472를 기록. 승패마진은 -2가 됐다.

이날 KIA는 박재현(좌익수)-박상준(우익수)-김선빈(지명타자)-김도영(3루수)-아데를린(1루수)-김호령(중견수)-데일(2루수)-김태균(포수)-김규성(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는 이의리가 나섰다. 총 73개의 공을 던진 이의리는 2.2이닝 4피안타 3사구 4탈삼진 4실점으로 부진했다.

KIA는 1회초 선취점을 뽑아냈다. 1사 상황 타석에 오른 박상준이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

려냈다. 후속타자 김선빈 우전 안타 이후에는 김도영이 좌측을 완전히 가리는 1타점 적시 2루타를 터트렸다. 이어 아데를린의 희생플라이로 김선빈이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이의리는 1회말 상대 선두타자를 라인드라이브 아웃으로 잡아낸 뒤 고승민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후 레이에스를 뜬공, 나승엽을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았다.

2회말에는 상대 첫 타자 전준우를 중견수 쪽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윤동희 볼넷 이후에는 전민재에게 2루타를 내주며 1사 2·3루 위기를 맞았다. 손호영은 땅볼로 처리했고, 그 사이 상대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후속타자 손성빈인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은 면했다.

3회말에는 상대의 빅이닝이 만들어졌다. 이의리는 상대 황성빈 볼넷 이후 고승민에게 1타점 적시 3루타를 허용했다. 이어 레이에스에게 안타를 내

주면서 고승민이 홈에 들어왔다.

위는 계속됐다. 이의리는 폭투와 볼넷을 쏟아내며 2사 1·2루에 몰렸다. 결국 KIA는 이의리 대신 김태형을 마운드에 올렸다. 김태형은 상대 전민재에게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허용했고, 경기는 2-4로 뒤집혔다.

김태형은 4회말 땅볼 2개와 뜬공 1개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5회말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김태형은 1사 상황 나승엽에게 2루타를 맞았다. 후속타자 전준우에게는 1타점 적시타를, 윤동희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이어 전민재를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내면서 1사 만루가 됐다. 김태형은 노진혁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기록하면서 결국 강판됐다.

KIA는 한재승을 마운드에 올렸다. 한재승은 상대 손성빈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은 뒤 삼진과 범타로 이닝을 막았다. 격차는 2-7로 크게 벌어졌다.

이후 8회까지 서로 득점 없이 이어진 경기는 9회초 KIA가 1점을 때내는 데 그치면서 그대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8연패 악몽 탈출...승점 1점 확보

강원FC와 흥경기서 0-0 무승부 김동화 시즌 첫 출장서 PK 선방



프로축구 광주FC가 길었던 연패 터널에서 탈출했다.

이정규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서 8연패를 당했던 광주는 이날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획득, 연패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그 결과 1승 4무 8패로 승점 7점이 됐다.

이날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안혁주와 김윤호가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홍용준, 주재중, 문민서, 정지훈을 배치했고 후방은 하승운, 김용혁, 안영규, 권성윤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동화가 꼈다.

전반전 초반 상대의 공세에 휘둘린 광주는 전반 13분 기회를 잡았다. 상대 진영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주재중이 슈팅을 때렸으나 상대 골키퍼의 손에 막혔다.

전반 21분에는 위기를 맞았다. 광주 진영 코너킥 상황에서 핸드볼 파울이 나오면서 상대에

게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상대 키커로 나선 김건희의 슈팅은 김동화에게 가로막혔다. 올 시즌 처음 출전한 김동화의 선방이었다.

이후에도 상대가 공격을 주도하며 흐름을 이어갔으나, 전반 막바지 광주가 다시 찬스를 만들었다.

전반 추가시간 주재중이 상대의 공을 가로채며 역습에 나섰다. 패스를 이어받은 홍용준은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에 막혔다. 이어진 코너킥에서도 홍용준의 원발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다. 이 공을 정지훈이 받아 득점을 노렸으나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결국 전반전은 0-0으로 끝이 났다.

광주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김윤호 대신 프리드손슨을 투입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후반 9분 상대 김대원의 중거리 슈팅을 김동화가 막아냈다. 상대는 주도권을 쥐고 광주 수비를 계속 흔들었지만, 광주가 잘 버텼다.

후반 41분에는 광주 진영에서 넘어온 공을 정지훈이 받아 문민서에게 넘겼다. 문민서는 전반 13분 기회를 잡았다. 상대 진영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주재중이 슈팅을 때렸으나 상대 골키퍼의 손에 막혔다.

전반 21분에는 위기를 맞았다. 광주 진영 코너킥 상황에서 핸드볼 파울이 나오면서 상대에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선수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인재 양성 요람 스포츠클럽 활성화 기대”

광주시체육회 ‘2026 스포츠클럽 인증서 전달식’ 개최

광주시체육회가 지역 스포츠클럽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1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6 스포츠클럽 인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은 복싱, 축구, 펜싱, 합기도 등 10개 종목 15개 스포츠클럽 관계자를 비롯해 김이남 광주시사이클연맹 전무이사, 남태윤 광주시검도회 전무이사, 이현섭 광주시불림협회 전무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인증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시역 스포츠클럽의 전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과 전문체육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는 검도 등 14개 종목 20개 클럽에서 총 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2개 종목, 1개 클럽, 9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설 스포츠클럽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산악, 에어로빅·힙합 등 10개 종목 16개 클럽에서 총 80명의 선수가 참가해 지난해보다 1개 종목, 1개 클럽, 14명이 늘어나며 지역 전문체육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자 미래 체육 인재를 키우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 덕



분에 광주체육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체육회도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